

“영석아, 슬기로운 산촌생활도 잘 부탁해”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우스갯말이 있다. 대학이나 직장에 처음 들어와 모든 게 낯설 때 같은 고민을 하며 함께 울고 웃는 ‘동기’의 존재가 그만큼 남다르다는 의미이다. 최근 시즌2를 마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의 주인공 조정석·유연석·정경호·김대명·전미도, 이른바 ‘99즈’도 마찬가지다. 극중 서울대 99학번으로 힘든 의대생 시절을 함께 보내며 이후 20년을 이어갈 우정을 다졌다. 부교수와 조교수가 된 40대에도 “그때 그랬지”라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 모습으로 시청자를 위로했다. 연출자 신원호(46) PD도 드라마를 만들면서 종종 자신의 동기들을 떠올렸다. 그 역시 자신의 ‘99즈’ 시절이 있었다. KBS에 처음 발을 들인 2001년이다.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의 주연인 연기자 유연석·정경호·전미도·연출자 신원호 PD·조정석·김대명(왼쪽부터)이 9월16일 시즌2 총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 PD는 “주연들의 끈끈한 팀워크”를 드라마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나영석·김원석·모완일 PD와 동기 가끔 서로 세트를 빌려쓰기도 해요. 이명한 티빙 공동대표 정신적 지주 시즌3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 “나의 ‘99즈’ 시절은…”

당시 정신없이 방송사를 누볐던 PD 입사 동기들은 이제 방송가의 ‘히트메이커’가 됐다. tvN ‘신서유기’의 나영석·‘미생’의 김원석,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모완일 PD 등이다. “‘99즈’만큼 각별한 사이는 전혀 아니에요. 하하하! 그래도 함께 입사했다는 묘한 유대감으로 서로 응원을 아끼지 않죠. 워낙 훌륭한 연출자들이라 자랑스럽고 우쭐한 마음도 크고… 가끔은 서로 세트를 빌려 쓰기도 해요. 동기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지.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동기 사랑’인가 봐요.” 동기뿐 아니다. 2012년 tvN으로 옮겨 처음 내놓은 ‘응답하라 1997’(응칠)의 탄생 배경에는 신입PD 시절 ‘버림목’이 되어준 선배들이 있었다. “이명한 티빙 공동대표는 ‘정신적 지

주’ 같은 분이예요. 김석윤 JTBC 콘텐츠 허브 제작부문장도 빼놓을 수 없죠. ‘응칠’을 할지말지 결정하기 직전 김 선배를 찾아간 게 기억이 나요. 김 선배가 아무렇지 않게 특 내뱉는 ‘너 할 수 있어’라는 말에 용기를 냈죠. 요즘도 드라마를 끝낸 후 김 선배가 보낸 칭찬 문자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마음 편히 ‘잘 끝났다’ 싶어요.”

● “시즌3 결정은 쉽지 않지만…”

지나해 시작해 두 편의 시즌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종합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제 동기 나영석 PD가 ‘99즈’들의 산촌 생활을 그리는 예능프로그램 ‘슬기로운 산촌생활’을 8일 내놓으면서 바통을 잇는다.

“‘99즈’들과 2년여를 함께 보내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시즌1과 2 사이에 10개월 가까운 공백이 있었지만 물 흐르듯 진행됐죠. 이런 내적 친밀감이 시즌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해요. 다섯 주인공들이 끈끈하게 쌓아올린 ‘케미스트리’가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듬해 시즌3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예정이지만, ‘슬의생’ 연출 경험은 신 PD에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다. “시즌제를 처음 제작하면서 고민과 피로가 쌓여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갈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 보호자들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듯, ‘99즈’의 일상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골때리는 그녀들’ 유소년 축구단 장학금 전달

SBS 예능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골때녀)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유소년 축구단에 장학금을 전했다. 7일 ‘골때녀’의 연출자 이승훈 PD와 프로그램 속 울스타전 우승팀인 블루팀의 박선영이 드림어시스트 유소년 축구단에 장학금을 건넸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울스타전에서 승리한 팀으로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인 유소년 축구단에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박선영은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가 밝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유소년 축구단이 큰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매주 수요일 밤 방송하는 ‘골때녀’는 13일부터 시즌2를 선보인다.

‘음주운전·폭행’ 노엘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노엘(정용준)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정용준·21)이 구속 기소에 섰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노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몰고 가다 다른 차와 충돌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병헌·차승원 등 톱스타들 한 드라마 뭉친다



이병헌

이병헌·차승원·이정은·엄정화·한지민·신민아·김우빈 등 톱스타급 연기자들이 대거 한 무대에 모인다. 이들은 내년 방송을 목표로 최근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다. 드라마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노회경 작가와 ‘아이리스’ 김규태 감독이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에 이어 다시 손잡고 만드는 작품이다. 제주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유니버스 형식으로 담는다.

이하늬, 10년간 속옷 광고모델 최장수 기록



이하늬

연기자 이하늬가 10년 동안 속옷 브랜드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최장수 기록을 썼다. 2012년 속옷 브랜드 비너스의 광고모델로 발탁된 이하늬는 최근 활동 10주년을 기념하는 페블 브랜드 측으로부터 받았다. 이하늬는 SNS를 통해 “사랑의 비즈니스.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10년의 세월을 함께한 동료이자 친구”라고 화답했다. 이하늬는 현재 SBS 금토드라마 ‘원더 우먼’에서 비리 여검사와 재벌 상속녀의 1인 2역을 연기하고 있다.

인디음악 축제 ‘잔다리 페스타’ 10주년 공연

인디음악 축제 ‘잔다리 페스타’가 개최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무대를 꾸민다. 10일 밤 10시부터 네이버 나우를 통해 그동안 ‘잔다리 페스타’에 출연한 이남치, 잠비나이, 나인, 지윤해 등 국내의 20개팀의 공연을 선보인다. 16일 오후 8시에는 서울 흥대 1969 공간에서 객력시익스프레스, 구남 등이 나서서 라이브 무대를 네이버 나우로 생중계한다. 축제의 역사를 담은 포토북과 굿즈도 내놓는다. 2012년 10월19일 첫 무대를 선보인 ‘잔다리 페스타’는 서울 서교동의 옛 명칭에서 축제 타이틀을 따와 인디음악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아왔다.



▲이역 김준(왼쪽)을 안고 있는 신원호 PD.

‘오징어게임’ 다음은 ‘갯마을 차차차’ 열풍…홍반장 김선호 뜬다

넷플릭스 6개국서 TV 쇼 부문 1위 신민아와 티격태격 로맨스 큰 호응

7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파트물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집계해 순위를 공개하는 83개국 중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케이(K)드라마’가 정상에 차지하고 있다. 이날 76개국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베트남·태국 등 6개국에서는 tvN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가 TV 쇼(프로그램) 부문 1위에 올랐다.

‘오징어게임’에 이어 ‘갯마을 차차차’가 전 세계적인 한국드라마 인기 물결을 이어가는 분위기이다. 주인공 신민아·김선호의

로맨스와 바닷가 시골 마을의 푸근한 정이 가득한 이야기가 해외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 “스토리텔링 통했다”

‘갯마을 차차차’는 ‘홈타운 Cha-Cha-Cha’라는 영어 제목으로 공개 중이다. 8월28일 첫 방영과 동시에 넷플릭스로도 선보여 전 세계 이용자와 접점을 빠르게 늘려왔다.

해외 시청자들은 극중 시골 사람들의 품앗이 문화 등이 낯설지만 오히려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시청자에게는 이미 익숙한 주인공들의 티격태격하는 로맨스 방식도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다. 전 세계 영상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최대 규모 사이트 IMDb에는 최근 “단순한 이야기이지

만 보기 편하다” “다른 나라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온정이 있다” 등 리뷰가 잇따라 올랐다.

‘오징어게임’과 ‘갯마을 차차차’ 등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는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한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캐나다 토론토 통신원은 한국 콘텐츠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최근 전 세계 트렌드인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선호는 새 ‘한류스타’로 우뚝

자연스럽게 ‘갯마을 차차차’ 출연자들의 해외 인지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김선호가 주목받고 있다. 극중 공진마을 곳곳을 누비는 홍반장 역할을 맡아 서울



김선호

에서 내려온 치과의사 신민아와 로맨스를 쌓아가는 그는 이미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류스타 자리에 오른 신민아와 달리 이번 드라마로 해외 시청자에게 새롭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과 증권사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해당 브랜드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 현지에서 김선호의 오프라인 팬미팅을 개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유지혜 기자

폴킴·김필·KCM…‘고막 남친’들이 온다

폴킴 새 앨범 ‘찬란한 계절’ 발표 김필·KCM도 가을 발라드 선배

한층 깊어지는 가을, ‘고막 남친’들이 몰려온다.

애절한 감성으로 특히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발라드 가수들이 가을 감성 물씬 풍기는 곡을 들고 잇따라 무대에 선다. 폴킴, 김필, KCM 등 저마다 특유의 목소리로 ‘음색 남신’ ‘고막 남친’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자리매김해온 이들도. ‘가을=발라드’라는 흥행 공식을 겨냥하며 음원차트도 휩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킴은 7일 새 앨범 ‘찬란한 계절’을 발표했다.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노랫말로 표현했다. 타이틀곡을 포함해 ‘글루미 선데이’, ‘투성이’ 등 3곡을 앨범에 수록했다. 앞서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 폴킴은 잔잔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무반주로 ‘찬란한 계절’을 부르는 모습을 담아내 화제를 모았다. 2013년 데뷔한 폴킴은 2018년 선보인 ‘모든 날, 모든 순간’, ‘너를 만나’ 등을 크게 히트시키면서 남자 발라드 대표 가수로 우뚝 섰다.

폴킴에 앞서 김필은 지난달 29일 ‘처음 만난 그때처럼’을 내놓고 가을 감성을 일



폴킴

찌감치 팬들에게 전했다. 2014년 엠넷 ‘슈퍼스타K 6’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김필은 거친 고음이 매력으로 꼽히며 팬들로부터 ‘음색 남신’으로 불리고 있다.

“처음 만난 그때처럼”은 그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한 노래이다.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발표했

다. 가을의 정취와 감성이 물씬 풍기는 클래식한 발라드곡이다. 2019년 JTBC 예능 프로그램 ‘비긴어게인3’에 그와 함께 출연한 임현일이 작사·작곡했다.

KCM도 발라드 가수로 돌아온다. MBC ‘놀면 뭐하니’의 발라드 그룹 프로젝트 MS G워너비의 멤버로 활동했던 KCM은 13일 새 앨범을 발표한다. 특유의 가늘고 옥타브 높은 고음을 지닌 그는 이날 미디엄템포의 발라드곡 ‘오늘도 맑음’을 내놓고 팬들을 만난다.

23일부터 이틀간 동명의 타이틀로 단독 콘서트도 연다. 가을 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MSG워너비의 멤버인 지석진, 박재정, 원슈타인이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알려져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